

전두환 광주법정 출석 지켜본 광주 투입 계엄군들 “사죄 한마디 없다니...” 뻔뻔함에 분노

“부하들 역사의 비극에 몰아넣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화난다 평생 고통 속 살고 있는 모든 군인 대신해 광주에 사죄했어야”

“헬기사격 사실 여부를 떠나 한때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부하들을 역사적 비극의 한가운데로 끌어 들어 놓고 정작 본인만 빠져나가는 행동이 너무 뻔뻔스럽다”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출두한 전두환(88)씨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지역대장이었던 신순용(71)씨는 1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헬기사격을 지시했던 안 됐던 전씨가 총 책임자이자 최고 권력자였으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광주에 갔으면 ‘죄송하다’는 한마디라도 하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신씨는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탈환작전을 앞두고 열린 작전회의에서 ‘헬기 엄호 하에 침투한다’는 작전 계획을 봤다”며 “계엄군 입장에서는 ‘도청과 전일빌딩 옥상에 시민군들이 기관총을 설치했다’는 첩보가 있었으니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헬기 기총 소사를 계획에 넣은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12·12 직후 특전사령부 내 특전회관에서 열린 전국 지역대장 이상 간부 회식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전씨에 대해 ‘친구이자 동지이자 연인’ 영도력이다’고 발언했다”며 “‘영도력’이라는 표현을 듣고 전씨가 군부 내에서 최고 실력자라는 사실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재판과

시민 8구를 직접 가매장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김씨는 “부하들을 역사의 한가운데로 끌어 들여 놓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전씨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난다”며 “우리(계엄군)는 군인으로서 전씨의 명령에 따라 왔는데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전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전씨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진정한 인간이라면 누구든 그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당시 11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광

주에 투입됐던 이모(61·당시 중위)씨도 전씨의 광주법정 출석을 보고 “광주에 와서 사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혀를 찼다.

TV를 통해 전씨가 정중하게 건고 말하는 모습을 본 이씨는 “(광주에 투입된) 우리는 전씨 때문에 개고생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며 “반면 전씨는 광주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오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죽기 전 광주시민과 투입 군인 모두에게 사죄해야한다”고 했다.

한 50만 쪽에 이르는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헬기사격 목격자(47명) 및 맞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뒤 회고록 내용은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당시 수사에서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왜곡된 5월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지법과 지검 등에 따르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법정 201호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와 전씨가 헬기사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밝힌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첫 재판에서 “5·18 헬기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해 방청객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또 “헬기사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론이 바뀌는) 대중의 논쟁적 사안”이라며 진실규명보다는 정치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전략도 펼쳤다.

전씨측이 이처럼 헬기사격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제시한 끈뚱하고 치밀한 공소장의 논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준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이정현 당시 형사1부장을 이끌고 특별법정을 꾸린 뒤, 1년여에 걸쳐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을 비롯

전두환 광주법정 세운 검찰 주역들

1년 걸쳐 50만쪽 자료 분석 헬기사격 객관적 증거 확보
윤영준 전 차장검사·이정현 전 형사1부장 등 새삼 주목

윤영준(57·사법연수원 24기·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이정현(61·27기·법무부 검찰담당관) 전 형사1부장 등 전두환(88)씨를 광주법정에 세운 숨은 주역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 사자명예훼손에 그칠 뻔 했던 고 소사건을 1년여 동안 수사해 1980년 5월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왜곡된 5월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지법과 지검 등에 따르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법정 201호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와 전씨가 헬기사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밝힌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첫 재판에서 “5·18 헬기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해 방청객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또 “헬기사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론이 바뀌는) 대중의 논쟁적 사안”이라며 진실규명보다는 정치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전략도 펼쳤다.

전씨측이 이처럼 헬기사격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제시한 끈뚱하고 치밀한 공소장의 논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준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이정현 당시 형사1부장을 이끌고 특별법정을 꾸린 뒤, 1년여에 걸쳐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을 비롯

한 50만 쪽에 이르는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헬기사격 목격자(47명) 및 맞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뒤 회고록 내용은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당시 수사에서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왜곡된 5월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지법과 지검 등에 따르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법정 201호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와 전씨가 헬기사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밝힌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첫 재판에서 “5·18 헬기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해 방청객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또 “헬기사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론이 바뀌는) 대중의 논쟁적 사안”이라며 진실규명보다는 정치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전략도 펼쳤다.

전씨측이 이처럼 헬기사격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제시한 끈뚱하고 치밀한 공소장의 논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준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이정현 당시 형사1부장을 이끌고 특별법정을 꾸린 뒤, 1년여에 걸쳐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을 비롯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전두환씨가 법원을 빠져 나가자 광주시민들이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합원에 돈 준 후보자 측근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준 광주 조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측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조합원의 집을 방문,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1건, 이첩 2건, 경고 10건 등 모두 20건을 조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 사칭 교육청에 허위공문 보낸 대학 신입생 조사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을 하라’, ‘문재인은 삼정교육대로 보내 교육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광주 모 대학교 1학년 박모(2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8일 광주시 한 우편취급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을 하라’는 내용의 문 대통령을 사칭한 문서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앞으로 발송한 혐의이다.

박씨는 A4 용지 두장 분량으로 ‘현재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과, 매우 심한 곳은 휴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휴업을 금지하고, 적발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라’, ‘문재인 등을 삼정교육대로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하라’는 등의 황당한 내용을 담았다.

박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을 하라”고 건의했다가 거부당하자, 함정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직업훈련소 등을 다니다 올해 이달 대학교에 입학했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11일 오후 5시 35분께 대통령 사칭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새벽 0시15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곡성 주택 신축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추락 사망

12일 오전 8시 30분께 곡성군의 한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2층 외벽 작업을 하던 건설근로자 A(47)씨가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곡성=김계초 기자 kjkim@kwangju.co.kr



손님인줄 알고...단속 경찰에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붙잡힌 50대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

○...1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남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오후 8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상가 4층 자선 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칭해 성매매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대가로 14만원을 요구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박남준 판사는 “A 씨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

- 장성 심계면 사창리 대지 268㎡ 조용한생활적합 3천만원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저수지 접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심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영광 흥농을 주거지역 5223㎡ 투자에 최적 금고 5천 매도 1억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777 영업장임 임대중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병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무안읍 원릉·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음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나주 금천면 면사무소 인근 땅 704㎡ 상가주택 211㎡ 5억5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면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 3동 372㎡ 8억2천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 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1㎡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2억 5천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오피스텔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 전체울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보장
- 즉시입주가능,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 1억2천만원

급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

다스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출제사유가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받았으나 출제사유가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이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위탁 받은 분
 -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사업주에게 영업대리인
 - 태양광 사업주에게 영업대리인
 - 태양광 영업대리인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010-2632-5659, 010-2632-5659
태양광사업: 010-2632-5659, 010-2632-5659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부장 분기 실적, 경력 10년 이상	화 순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수정/개발	· 설계/영업 경력자		나 주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 3월 9일: 010-2632-5659, 010-2632-5659
· 3월 10일: 010-2632-5659, 010-2632-5659